

# 대학생의 정서적 공감, 스트레스 대처방식, 스마트폰 중독의 구조모형 연구: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유리<sup>1</sup>, 박정숙<sup>2\*</sup>

<sup>1</sup>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sup>2</sup>남부대학교 간호학과

##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Stress Coping Strateg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Empathy and Smartphone Addiction of University Students

Yu-Ri Lee<sup>1</sup>, Jeong-Sook Park<sup>2\*</sup>

<sup>1</sup>Dept. of Social Welfare, Nambu University

<sup>2</sup>Dept. of Nursing, Namb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정서적 공감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갖는 매개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적 공감, 스트레스 대처방식, 스마트폰 중독 척도를 이용하여 설문조사 하였고,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적 공감과 스마트폰 중독 사이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스마트폰 중독 사이에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정서적 공감과 스마트폰 중독 사이의 영향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적극적 대처방식은 스마트폰 중독 수준을 감소시키는 간접효과가, 소극적 대처는 스마트폰 중독을 악화시키는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성별에 따른 영향력 분석 결과, 여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더 높고, 남학생의 경우 적극적 대처방식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을 중재할 수 있는 유용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며,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대학생, 스마트폰 중독, 정서적 공감, 스트레스 대처방식, 구조방정식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stress coping strateg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empathy and smartphone addiction. To get the results,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university students. Key outcomes of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verified that emotional empathy and smartphone addiction,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martphone addiction had statistically meaningful direct relationships. Second, it was analyzed that stress coping strategies had partial mediating e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empathy and smartphone addiction. Third, difference analysis according to gender, female students showed higher smartphone addiction and lower active stress coping strategy in comparison with male students. Based in these results, comprehensive interventions for preventing smartphone addiction were proposed.

**Key Words** : University students, Smartphone addiction, Emotional empathy, Stress coping strategi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is paper was supported by Nambu University in 2017.

\*Corresponding Author : Jeong-Sook Park(pk0207@nambu.ac.kr)

Received December 13, 2017

Revised December 20, 2017

Accepted February 20, 2018

Published February 28, 2018

## 1. 서론

최근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스마트폰중독은 동일하게 행위중독으로 분류되는 인터넷중독보다 더욱 심각한 폐해도 낳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은 PC 보다 즉각성과 자극성의 측면에서 중독의 위험성이 높다[1,2]. 스마트폰 중독군 비율에 있어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나타났고[3], 중·고등학생 시절에 비해 대학생들은 스마트폰 사용이 훨씬 더 쉽고, 졸업 후의 진로와 취업, 이성교제 등과 관련한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게 될 때 이러한 문제들을 회피하는 시도로 스마트폰에 몰입하게 되는 것이 이유로 지적된다[4, 5].

대학생을 비롯한 청소년 집단에서 스마트폰의 시간간 제약이 없는 SNS 및 메신저 기능을 활용한 대인관계 맺기가 중요한 일상이 되었으며, 자신의 관심사 및 일상을 공개하고 타인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획득하는 과정이 지속되고 있다[6]. 스마트폰은 기존의 오프라인 상의 대인관계 방식을 대체하며 짧은 층의 관계 형성과 유지에 새롭게 중추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7]. 스마트폰 과다사용군에 있어 동정적이고 수용적인 대인관계 및 자기노출 등의 심리적 성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실제적 현실에서 사회·정서적 지지를 얻지 못할 때 이러한 상실감을 사이버 상에서 보상받고자 하는 시도를 지속하게 되고 스마트폰 중독으로 빠지게 된다[8]. 정서적 교류 욕구가 강할수록 스마트폰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동기가 강해지고,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스마트폰을 통해 타인의 기대를 맞추는 노력에 집착하게 되고 소통을 중단하기 어려워져 금단, 내성, 일상장애 등의 중독 증상을 높게 보이게 되며, 결국 사회적 관계에서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기에, 스마트폰 중독 감소를 위한 심리적 특성과 관련 영향요인 분석과 중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9,1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스마트폰 중독에 이르는 심각성을 중재하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이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좌절이나 저해요소를 극복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적극적 대처방식과 자신의 감정이나 사고 등을 내부로 투여하여 문제를 피하거나 방어하는 방식의 소극적 대처방식으로 구분한다[11,12].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중독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문제해

결중심인 적극적 대처방식이 부족할수록 인터넷중독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회피적-정서지향 중심인 소극적 대처방식이 강할수록 인터넷중독과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으나[13-15], 스마트폰 중독을 매개하는 스트레스 대처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타인과의 친밀성이라는 발달단계상의 과업을 획득해야 하는 대학생 시기에 SNS 상의 과도한 정서적 공감으로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 몰입하게 되는 경우,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스마트폰 중독으로 빠지게 되고, 소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활용할수록 그 심각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론적 가정이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며,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정서적 공감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는다는 이론적 근거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16,17]. 기존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 영향요인들 간의 선형관계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던 것에서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공감, 스트레스 대처방식, 스마트폰 중독 간 관계를 구조모형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어떠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성별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 요인들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고된 바[18,19] 연구모형에 선정된 주요변인들에 대한 영향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을 중재할 수 있는 유용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며,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2.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N대학교 IRB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 전남 지역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이며,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350부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16부를 제외하고 334부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되었다. 남학생 160명(48%), 여학생 174명(52%) 이었고, 평균연령은 21.4세(±1.449세)였다.

### 2.2 측정도구

### 2.2.1 정서적 공감

Davis[20]가 개발하고 강일[21]이 타당화 한 한국판 버전(Korean version of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중 정서적 공감을 측정하는 14문항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 척도의 문항 중 탐색적요인분석 결과 요인 적재치 및 공통성 값이 0.4 이상 기준을 충족하고,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값이 0.4 이상 기준을 충족한 5문항을 최종 활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795$  였다.

### 2.2.2 스트레스 대처방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평가하기 위해 Folkman과 Lazarus[22]가 개발하고 김정희[23]가 번안 수정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적극적 대처(문제 중심대처, 사회적지지 추구)와 소극적 대처(회피/정서적 대처, 소망적 사고)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 척도의 24문항 중 요인 분석 기준을 충족한 적극적 대처 4문항, 소극적 대처 6문항을 최종 활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의 대처 성향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797$  로 나타났다.

### 2.2.3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24]에서 개발한 성인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 척도 15문항 중 요인분석의 기준을 충족하는 5문항을 최종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 .880$ 으로 나타났다.

## 2.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는 SPSS 20.0과 AMO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검증, 요인분석,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정규성 분석,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X^2$ , CFI, TLI, RMSEA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25].

## 3. 분석결과

### 3.1 측정변수간 기술통계치

구조방정식모형에서 각 측정변수들이 정상분포를 이루지 않을 경우 다변량정규분포성의 가정을 충족시킬 수 없고, 왜곡된 추정치를 얻게 되어 정확한 통계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조방정식모형에서의 정상분포조건(왜도<2, 첨도<7)을 고려했을 때[26], 본 연구모형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구조방정식 적용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Categories		M (SD)	Skewness	Kurtosis
Emotional Empathy	1	3.29(.850)	-.380	.113
	2	3.49(.865)	-.275	.112
	3	3.52(.823)	-.409	.482
	4	3.54(.902)	-.216	-.402
	5	2.85(.921)	-.093	-.234
Active Coping	1	3.19(.824)	-.084	.435
	2	3.31(.875)	-.095	-.155
	3	3.41(.854)	-.091	.007
	4	3.37(.801)	-.331	.510
Passive Coping	1	3.09(.968)	.033	-.371
	2	2.92(.882)	-.027	-.128
	3	3.29(.909)	-.180	-.361
	4	2.98(.912)	.041	-.421
	5	3.38(.881)	-.479	.319
	6	2.44(1.008)	.121	-.849
Smartphone Addiction	1	2.59(.807)	-.319	-.360
	2	2.16(.804)	.152	-.619
	3	2.23(.770)	.096	-.467
	4	2.53(.750)	-.414	-.246
	5	2.04(.734)	.310	-.201

## 3.2 연구모형 분석

### 3.2.1 구조모형 분석 및 모형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며 평가 기준이 확립된 CFI, TLI, RMSEA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고, Table 2와 같이 모든 적합도 지수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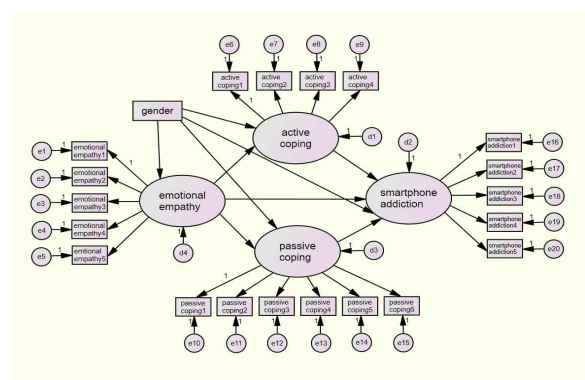


Fig. 1. Study Model

Table 2. Estimates & Goodness-of-fit index

Path	Estimates		S.E.	C.R.		
	B	$\beta$				
Emotional empathy → Active coping	.352	.319	.089	3.956 ***		
Active coping → Smartphone addiction	-.173	-.178	.079	-2.184 *		
Emotional empathy → Smartphone addiction	.278	.259	.093	2.294 **		
Emotional empathy → Passive coping	.202	.217	.087	2.332 *		
Passive coping → Smartphone addiction	.239	.207	.109	2.195 *		
Gender(dummy) → Emotional empathy	-.027	-.027	.064	-.419		
Gender(dummy) → Active coping	.151	.136	.070	2.145 *		
Gender(dummy) → Passive coping	-.097	-.104	.071	-1.371		
Gender(dummy) → Smartphone addiction	-.192	-.178	.069	-2.782 **		
Emotional empathy → Emotional empathy 1	1.000	.689				
Emotional empathy → Emotional empathy 2	1.034	.658	.129	8.045 ***		
Emotional empathy → Emotional empathy 3	1.183	.725	.142	8.341 ***		
Emotional empathy → Emotional empathy 4	.931	.520	.133	7.016 ***		
Emotional empathy → Emotional empathy 5	.497	.272	.121	4.093 ***		
Active coping → Active coping 1	1.000	.593				
Active coping → Active coping 2	1.069	.626	.134	7.951 ***		
Active coping → Active coping 3	.806	.525	.112	7.185 ***		
Active coping → Active coping 4	.701	.488	.103	6.804 ***		
Passive coping → Passive coping 1	1.000	.484				
Passive coping → Passive coping 2	.746	.398	.181	4.119 ***		
Passive coping → Passive coping 3	.827	.426	.195	4.236 ***		
Passive coping → Passive coping 4	.938	.482	.212	4.434 ***		
Passive coping → Passive coping 5	.461	.246	.150	3.062 **		
Passive coping → Passive coping 6	.445	.207	.168	2.653 **		
Smartphone addiction → Smartphone addiction 1	1.000	.669				
Smartphone addiction → Smartphone addiction 2	.626	.398	.099	6.321 ***		
Smartphone addiction → Smartphone addiction 3	.745	.523	.101	7.360 ***		
Smartphone addiction → Smartphone addiction 4	1.029	.742	.118	8.714 ***		
Smartphone addiction → Smartphone addiction 5	.644	.474	.095	6.770 ***		
Model fit	$\chi^2$	p	df	CFI	TLI	RMSEA
	291.058	.000	175	.896	.875	.045

90 Percent Confidence Interval for RMSEA = (0.035;0.054)

\*\* P<.01, \*\*\* P<.001

정서적 공감은 적극적 대처( $t=3.956, p<.001$ ), 소극적 대처( $t=2.332, p<.05$ ), 스마트폰 중독( $t=2.294, p<.01$ )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적극적 대처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 $t=-2.184, p<.05$ )과 소극적 대처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 $t=2.195, p<.05$ )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관련성을 갖는다고 분석되어 통제된 성별의 경우, 남학생은 적극적 대처 수준이( $t=2.145, p<.05$ ), 여학생은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t=-2.782, p<.01$ ).

### 3.2.2 매개효과 분석

연구모형에서 적극적 대처방식은 정서적 공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부분 매개(partial mediating)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공감이 적극적 대처방식을 매개로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는  $-.055$ 이었으며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을 통한 유의도 검증결과  $p=.02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대처방식 역시 부분 매개(partial mediating)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공감이 소극적 대처방식을 매개로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는  $.056$ 이었으며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을 통한 유의도 검증결과  $p=.049$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Analysis of Mediating effects

Path	Estimate	S.E.	95% Confidence Interval Bias-corrected	P
Emotional empathy → Active coping	.302	.118	(.077, .536)	.000
Active coping → Smartphone addiction	-.181	.090	(-.385, -.023)	.028
Emotional empathy → Smartphone addiction	.295	.094	(.103, .460)	.000
Emotional empathy → Active coping → Smartphone addiction	-.055	.039	(-.163, -.006)	.021
Path	Estimate	S.E.	95% Confidence Interval Bias-corrected	P
Emotional empathy → Passive coping	.237	.131	(.031, .493)	.012
Passive coping → Smartphone addiction	.238	.116	(.023, .488)	.023
Emotional empathy → Smartphone addiction	.176	.118	(.095, .373)	.027
Emotional empathy → Passive coping → Smartphone addiction	.056	.054	(.001, .230)	.049

## 4. 결론 및 제언

### 4.1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적 공감, 스트레스 대처방식, 스마트폰 중독 간 관계를 구조모형으로 분석하고 어떠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스마트폰 중독에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지 규명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적 공감은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허구의 관계에 깊게 몰입하거나 그 대상을 동일시하며 타인의 고통을 함께 경험하고자 하는 정서적 공감수준이 높을 경우 대인관계 매체인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연결된다는 선행연구 [6,7,9,10]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상호작용 시 타인의 부정적 감정을 함께 경험하는 과정은 스마트폰에 더 몰매이도록 하고 이러한 심리적 성향에 의한 몰입은 중독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정서적 공감능력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적극적 대처는 중독의 심각성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소극적 대처는 중독의 심각성을 악화시키는 위험요인이 확인되었고, 중독 과정에 대한 매개효과를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 [13-15]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구조방정식을 통해 스마트폰중독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위험, 보호요인으로서의 대조적 간접효과가 동시에 확인된 것은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도출된 결과로서, 정서적 공감 활용 과정에서 스트레스원과 문제를 변화시키거나 관리하는 행동전략이 스트레스 유발 요인을 회피하거나 소망적 사고에 중점을 두는 전략보다 스마트폰 중독 감소에 중요한 예측요인임을 시사한다.

셋째, 성별에 따른 영향력 분석 결과, 남학생의 적극적 대처활용 수준이 더 높고, 여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여성의 스마트폰 중독 심각성 및 소극적 대처전략 활용의 문제점을 더 높게 보고한 선행연구 [12,13,18]와 일치하는 결과로, 스마트폰 중독 중재방안 마련 시 여성의 취약성을 고려한 위험요인의 감소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4.2 제언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

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과도한 정서적 공감 활용은 가상 세계 몰입을 병리적으로 높인다는 점이 확인된 바, 대학생을 위한 스마트폰 중독 예방 전략 개발 시 건전한 스마트폰 사용 가이드 뿐만 아니라 공감능력에 대한 심리적 평가를 실시하여 관점취하기 중심의 인지적 공감능력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공감능력 향상 개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정서적 공감을 높게 보이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공감능력에 대한 중재와 함께 스트레스 정도와 그 대처방식을 확인하여 위험요인인 소극적 대처를 감소시키고 보호요인인 적극적 대처를 향상시키는 스트레스 대처 훈련을 실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문제해결 중심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 훈련에 집중하면서, 회피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를 줄이는 방향으로 중재 메뉴얼을 구성하여 개발하고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내재화 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회차별 프로그램으로 실행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여성의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 및 이를 완충하는 보호요인인 적극적 대처의 취약성이 확인된 바, 성별에 따라 중재 및 치료전략을 차별화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구조모형에 성별 변수를 통제하는 수준에서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주요 변수들의 영향관계와 경로에 있어서 성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여 예측 요인들이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성별로 어떻게 다른가를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본 연구 취지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특정 지역의 4년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점을 갖는다. 후속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경향군, 중독 위험군 등 증상의 정도에 따른 예측요인인 심리적 특성들의 영향력의 차이점을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는 연구, 어플리케이션 활용 유형이나 활용 목적에 따른 심각성 정도 및 심리·정신적 특성에 대한 다집단 분석, 종단적 연구를 통한 관련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 분석 등으로 연구방법론을 확장할 것을 제안한다.

## REFERENCES

- [1] A. Enex-Darcin, C. Noyan, S. Nurmedov, O. Yilmaz &

- N. Dilbaz. (2015). Smartphone addiction in relation with social anxiety and loneliness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Turkey. *European Psychiatry, 30(1)*, 28-31.
- [2] H. S. An. (2017). The effects of personal, environmental, smartphone characteristics factors on the smartphone addiction degrees and daily life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6)*, 39-50.
- [3] S. J. Park, M. A. Kwon, M. J. Beak & N. R. Han. (2014). Relation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college students using social network service. *The Korea Contents Society, 14(1)*, 289-297.
- [4] J. H. Jin. (2017). Experiences of smartphone addi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2)*, 421-429.
- [5] S. B. Park & H. S. Hwang. (2014). An exploratory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on smartphone addiction: focused on the application use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8(1)*, 289-311.
- [6] H. S. Kim. (2014). The influence of interpersonal relation tendency SNS commitment among college: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anxiety.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35(1)*, 11-26.
- [7] O. S. Lee & M. J. Kim, (2017). The relationship among smartphone addiction, emotional intellig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ommunication skill f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7)*, 319-328.
- [8] J. Kim. R & LaRose Peng, W. (2009). Loneliness as the cause and the effect of problematic internet us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us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Cyberpsychology & Behavior, 12(1)*, 451-455.
- [9] M. Melchers, M. Li, Y. Chen, W. Zhang & C. Montag. (2015). Low empathy is associated with problematic use of internet: empirical evidence from China and Germany. *Asian Journal of Psychiatry, 17(1)*, 56-60.
- [10] S. J. Park, M. S. Chang, H. W. Kwak & S. G. Lee. (2017). The difference in execution func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 and empathy ability of 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group by their phone application usage type. *The Korean Journal of Cognitive and Biological Psychology, 29(1)*, 1-19.
- [11] T. E. Choi & Y. R. Lee. (2015). Latent means analysis among stress of college life, avoidance-oriented coping and mental health according to gender. *Journal of Future Social Work Research, 6(2)*, 63-88.
- [12] S. Young. (2005). Coping strategies used by adults with ADH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1)*, 809-816.
- [13] S. J. Lee, G. A. Kim & C. H. Hong. (2011). The effects of internet use motivation and stress coping on adolescent's pathological internet use: focused on gender difference. *The Korean Journal of Women Psychology, 16(3)*, 265-284.
- [14] J. S. Lee. (2012). The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on internet addiction level of university students: stress coping strategies as mediating variable. *The Korean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0(2)*, 115-134.
- [15] W. O. Oh & H. J. Shin (2016). Impact of depression, ego-resilience, and active stress coping on internet addiction tendency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0(1)*, 56-69.
- [16] M. Takahasi & M. Kitamura.(2009). Addictive personality and problematic mobile phone use. *Cyberpsychology & Behavior, 12(1)*, 501-507.
- [17] C. Jenaro, N. Flores, M. Gomez-vela, F. Gonzales-Gil & C. Caballo. (2007). Problematic internet and cell-phone use: psychological, behavioral, and health correlates. *Addiction Research and Theory, 15(3)*, 309-320.
- [18] H. S. Jeon & S. O. Jang. (2014). A study on the influence of depression and stress on smartphone addi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gender.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8)*, 103-129.
- [19] L. Rueckert & N. Naybar. (2008). Gender difference in empathy: The role of the right hemisphere. *Brain and Cognition, 67(2)*, 162-167.
- [20] M. H. Davis.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1)*, 113-126.
- [21] I. Kang, S. W. Kee, S. E. Kim, B. S. Jeong, J. H. Hwang, J. E. Song & J. W. Kim. (2009).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version of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8(1)*, 352-358.
- [22] S. Folkman & R. S. Lazarus. (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1)*, 150-170.
- [23] J. H. Kim. (1995). Relationship of the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trategies with emotional experience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7(1)*, 44-69.
- [24]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1). The

survey on internet overdependenc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25] S. H. Hong. (2000).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26] P. J. Curran, S. G. West & J. Finch.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이 유 리(Lee, Yu-Ri)

[정회원]



- 1998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200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08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정신보건사회복지, 아동청소년정신건강
- E-Mail : yrlee@nambu.ac.kr

박 정 숙(Park, Jeong-Sook)

[정회원]



- 1996년 2월 : 원광대학교 약학과(약학석사)
- 2002년 2월 : 원광대학교 약학과(약학박사)
- 2006년 3월 : 남부대학교 대체학과 교수
- 2014년 9월 ~ 현재 : 남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생약학, 대체의학
- E-Mail : pk0207@nambu.ac.kr